

###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 손학규 경기도지사

# “나는 장점 안 알려진 저평가 우량주”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미국·유럽·중동 등을 함께 누비며 임기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에 나섰던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 들 전망이다.

개혁적인 이미지에 경제 마인드까지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 손학규 지사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쟁 구도는 물론 대선을 앞둔 정치권

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일보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새로운 바람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손학규 지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치적 철학과 비전, 향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1일 서울 롯데호텔 3층 토크 룸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 손학규의 사람들

운동권 출신 보좌진 많아...30여명 자문교수  
한나라 원희룡 의원 등 일부 소장파와 교감

손학규 사단은 크게 학생 운동권 출신 그룹과 서강대 교수 시절 맺은 인맥, 한나라당 인맥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참모진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는 평이다.

우선 김성식 정무부지사과 이윤생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 홍보실장, 이제학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은 운동권 출신으로 손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여기에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이수영 전 교통개발연구원장 등은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건설교통비서관을 지낸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과 과학기술부 차관을 역임한 한정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 등은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자문교수단의 역량과 규모도 만만치 않다. 작고한 조영래 변호사의 동생인 조중래 명지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유홍준 교수 등 30여명이 손 지사의 자문교수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영식 경기도 서울사무소장, 홍윤준 경기지사 보좌관, 이수원 공보관, 박종선 정책특보 등은 손 지사의 그림자로 정평이 나갔다.

당내 인맥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에 비해 약한 편이다. 원희룡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손학규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손 지사와 상당한 교감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동욱 서울정치팀장 tuim@

### 만남사람 = 오주승 정치부장

▲지방선거 결과 및 참여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하는 데... 곤혹스럽다. 참여 정부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위치 파악을 못 했다고 본다. 세계 속 위치나 역사 속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과거지향 또는 폐쇄적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치열한 국제 경쟁사회에 노출돼 있는데 참여정부는 70~80년대 인식을 가지고 과거에 얽매었다고 생각한다.

또 무능하면 아박하지나 않아야 하는데... 무능한 집권세력이 나라 빛을 늘고 곳간은 위태로워 가는데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마음조차 모질게 굴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 “참여정부 역사속 위치 잃어”

▲이번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압승에 대해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이 서울과 경기지역 구청장 및 광역 의원을 싹쓸이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의 표시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화합의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최근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 대국민 지지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주식은 주식전문가가 먼저 평가하듯이 정치도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앞서 평가한다. 대선 후보로 주목된 다른 분들은 그동안 장점들이 모두 알려진 상태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다. 내가 살아온 길과 그동안의 성과 등이 차근차근 알려진다면 국민이 ‘고평가 불량주’와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손 지사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 맞지 않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은 과거 전통적 여당 출신부터 전문가 출신, 운동권 출신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만 해도 열렬한 노동운동가 출신 아닌가. 그러나 한나라당은 시대정신과 흐름을 읽지 못해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실패했다. 내가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것은 한나

라당을 변화시켜 새로운 한나라당의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적, 이념적, 세대 한계를 뛰어 넘어 남북 화해와 세계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 집권의 당위성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산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정당이다. 또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미래를 예측하며 경제 번영과 민주주의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해왔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역기반, 지지기반 등 한나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하는 것이 급선무며 나는 여기에 정치적 생명을 걸 것이다.

### “한나라 지지기반 한계 넘어야”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선출 시기에 대한 입

현재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4년 중임제 찬성 논의는 일러”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고건 전 총리에 대해 상당한 혹평을 하고 있는데.  
-고건 전 총리가 그동안 역사와 진지하게 씨름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대선 후보라면 스스로 비전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적당히 안주하며 여당, 야당을 기웃거리는 것은 눈치 보거나 출타기로 비쳐져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또한 시대정신에도 투철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에게 제시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민주화가 필요할 때는 민주화를 위해 몸을

## “수도권 규제 하면 기업들 외국으로 나가 지역주의 재조합식 정계개편 절대 안돼 산업화 소외된 호남 문화·관광산업 적지”

장은.  
-벌써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은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선 방식과 시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일각에서 180일 전 대선 후보 선출은 노출 기간이 길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그 정도의 후보는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 한나라당은 이번엔 정말 뜻뜻한 사람을 후보로 내야 한다.

▲정계개편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계개편을 논의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계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합집산식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대선은 동서 대결, 즉 지역구도에 묶일 수밖에 없다. 지역주의 재조합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대결구도를 끝장내야 한다.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던졌다. 그러나 지금은 낡은 이념이나 명분 싸움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을 하나라도 더 일으키고 일자리를 더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시대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대북, 대미 관계에 대한 입장은.  
-북한을 봉쇄시켜 붕괴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선례가 없다. 나는 한결같이 대북교류를 주장해왔다. 상호 신뢰를 높여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원칙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원칙을 견지,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 “상호신뢰 높여 北 개방 시켜”

또한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대북관계의 기본적 인프라다. 말로만 자주노선을 외치는 것은 자위행위에 불과하다.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

지 못하면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참여정부는 그것을 모르거나 말로만 자주노선을 외치는 것이다. 실리의교가 진정한 자립외교다.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장기적으로 FTA는 대체다. 개방도 성공의 비결이다. 쌀 문제도 ‘윈다, 안 윈다’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 걱정된다. FTA는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가 대수도권에 대해 합의, 광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수도권”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요즘은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다. 기업은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유리한 입지를 고른다. 수도권 규제를 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간다면 수도권 규제가 백번 옳다. 그러나 중국이나 대만으로 기업들이 간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 발전은 어렵다고 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했지만 오히려 지방과의 격차는 더 늘어났다.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어떤 것은 묶고 어떤 것은 풀 것인지를 잘 검토해야 일률적인 규제는 곤란하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특화 산업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지역 보고 주는 표 안 받겠다”

▲지역감정은 아직도 정치권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인데.  
-정치에 입문한 뒤 매년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역감정이라는 산맥을 넘지 않고서 집권하기도 어렵지만 집권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퇴색할 것이다. 내가 대선에 나서면 ‘지역을 보고 주는 표는 단 한 표도 안 받겠다’고 호소할 것이다.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조언한다면.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우선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광양항 개발, 전라선 복선화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또한 지난 산업화에서 소외된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문화와 관광을 대대적으로 산업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을 고려, 글로벌한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정리=임동욱 서울정치팀장 tuim@krkwangju.co.kr  
/사진=고경석 사진부장 ksgo@kwangju.co.kr

## 정기노간 동족 800주년 기념

# 광주 ↔ 울림바타르

<p><b>울림바타르 소개</b></p> <p>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울림바타르를 방문하면 몽골의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p>	<p><b>여행 정보</b></p> <p>항공편: 서울-광주-울림바타르 기차편: 서울-광주-울림바타르</p>	<p><b>관광 코스</b></p> <p>1. 울림바타르 시내 관광 2. 몽골 전통 공연 관람 3. 울림바타르 근교 관광</p>	<p><b>문의처</b></p> <p>광주광역시 문화관광과 전화: 062-225-6070</p>
---	--	---	---

본격시 · 문화관광과 ☎ 062-225-6070 · 남부관광 ☎ 062-225-6070 · 미려관광 ☎ 062-225-6070 · 일명관광 ☎ 062-225-6070  
· 힐프스관광 ☎ 062-225-6070 · 울림관광 ☎ 062-225-6070 · 울림관광 ☎ 062-225-6070 · 울림관광 ☎ 062-225-6070

☎ 225-6070